

“코로나 시대, 생존 위기 놓인 대학... 재정지원 늘려야”

대교협, 132개 4년제 대 총장 모여 최우선 과제로 ‘대학의 일상 회복’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로 확대해야”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4년제 대학 총장 132명이 모여 고등교육 혁신 과제와 전략을 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일 부산광역시 피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199개 회원대학 중 132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세미나 주제는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이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대학총장님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협력, 이해를 바탕으로 중단 없이 교육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K-에듀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업성취 및 자기개발에



지난 2019년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이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동기를 약화시켰고, 졸업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대학의 일상 회복을 대학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대면 활동을 확대해 교육역량과 학습기회를 회복·만회해야 한다”며 “캠퍼스 생활

의 소중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선 실험·실습·실기 및 예·체능 과목을 포함해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의 범위를 넓혀 가고,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과 지역의 방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학은 위기를 맞았다고 김 회장은 진단했다.

앞서 대교협은 대학 의견을 모아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수준으로 확대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재정 지원의 대폭적 확대와 안정적인 지원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 제한을 폐지해 완전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와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회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적인 우리 대학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동결, 지방세 등 과세 증가, 4대요건(교차·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학도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여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과 국가·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학이 경쟁

보다는 협업과 공유의 전열을 기다리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해 각자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강연 및 대학생 의견 발표’에서는 ▲MZ세대의 이해와 대학교육(홍효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등교육 개선 방안(박인우 고려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고등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코로나시대, 대학생에게 듣는 주제로 재학생 3명의 코로나시대 대학생활에 대한 경험과 대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학정책 종합토론’에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대학총장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학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19 등 위기를 넘어서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대학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대학교육 정상화 ▲대학(대교협)-교육부 간 협의체 구축이 담겼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특목·영재고 출신 신입생, 서울대 가장 많아 아주대, ‘THE 세계 신흥대학’ 국내 5위

서울대, 특목·영재고 출신 비율 28% 2위 이화여대, 신입생 5명 중 1명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자 중 특목고와 영재학교 출신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서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원, 예술대학 등 특수 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교 기준이다.

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가 73.4%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자율고(사립/공립) 10.0% ▲특수목적고 4.5% ▲특성화고 5.9% ▲기타(영재학교, 검정고시 등) 6.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중 특목고(과학고, 외고·국제

고, 예술·체육고)와 영재학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대학은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숙명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순이다. 대학별 규모가 달라 학생수로만 보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모두 10%를 넘는다. 이들 대학은 2020학년도에도 특목고 및 영재학교 출신의 비율이 높은 10개 대학에 포함된 바 있다.

◆서울대·이화여대 20% 이상이 특목고 및 영재학교

서울대는 입학생 중 특목고 및 영재학교 출신의 비율이 27.8%로, 전년(27.4%)에 이어 전체 입학생 인원의 4분의 1 이상을 영재학교 출신이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가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수

시모집 선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수시 모집 최종 합격생 2591명 중 특목고 및 영재고 출신은 902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다. 이화여대는 20.3%를 기록해, 신입생 5명 중의 1명은 특목고 및 영재학교 출신이다. 뒤를 이어 연세대가 16.5%의 비율을 보였으며 숙명여대(15.8%), 고려대(15%) 순이다.

◆자연계는 서울대·고대·연대 순...인문계는 외대·성대 순

출신 학교 유형을 조금 더 구분해서 살펴보면,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 출신의 비율은 서울대가 1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현진 기자

개교 50주년 미만 대학 475곳 평가

아주대학교가 ‘THE 세계 신흥대학 순위’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국내 톱 5를 형성했다.

아주대는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개교 50주년 미만의 전 세계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THE 세계 신흥대학 순위’에서 세계 순위 152위, 국내 순위 5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아주대의 지난해 세계 신흥대학 순위는 201~250위로, 올해는 전년 대비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는 개교 50

주년 미만의 전 세계 47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THE 세계 신흥대학 순위’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THE는 지난 2010년부터 신흥대학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교육 여건(30%) ▲연구 실적(30%) ▲논문 피인용(30%) ▲국제화(7.5%) ▲산학협력(2.5%)을 지표로 평가한다.

아주대는 그동안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질 평가 기반의 우수 논문상을 신설하고, 신입 교원에게 주어지는 정착 연구비를 확대 개편했다.

아주대에 새로 임용된 신진 연구자들의 경우 이공계는 최대 1억원, 인문사회계는 최대 5000만원의 정착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가칭)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

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며,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전정부 인사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회 1명과 교육부 차관 1명과 교육감협의회 1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안 통과에 대해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해 정파를 초월한 기구 의미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북극해에 미세플라스틱 28만톤 확인

김승규 인천대 해양학과 교수연구팀

인천대학교는 김승규 해양학과 교수(사진)연구팀이 서 북극해 계절해빙에 28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이 갇혀 존재함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양은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버금가는 양이다.

1 μm ~ 5m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해류와 바람에 실려 북극해로 유입된 후 해빙(바다얼음)에 포획되어 축적된다고 알려졌을 뿐, 정량적인 값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김승규 교수 연구팀과 극지연구소 연구팀(소장 강성호)은 2016년과 2017년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서 북극해를 탐사해 해빙(바다얼음), 해빙 연못수, 눈 에 남아있는 미세플라스



틱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태평양에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여름에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얼어붙는 계절해빙에 해수에 존재하는 양보다 수 만배 이상 농축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계절해빙은 대서양 쪽의 동 북극해보다 태평양 쪽의 서 북극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서 북극해에 모인 미세플라스틱은 극지원단표 종류를 타고 중앙 북극해나 대서양 쪽 북극해까지 이동하게 된다.

기후변화로 계절해빙의 양이 늘어나면 이 같은 움직임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현진 기자